

올해 수능 11월18일 예정대로 치른다...EBS 연계율 50%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도 선택과목 생겨
 사탐·과탐 문·이과 구분 없이 2개 과목 선택
 영어 EBS 간접연계로...지문 통째로 출제 안 돼
 4교시 한국사-탐구 답안지 분리...실수 방지
 “올해 수능 난이도에 코로나19 변화 미반영”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고3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더라도 연기되지 않고 11월18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2022 수능은 전년도 시험과 달리 국어와 수학, 직업탐구 영역에도 선택과목이 생긴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따라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EBS 연계율은 70%에서 50%로 낮아진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잘 준비해서 시험이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국·수 공통과목으로 선택과목 점수 보장...유불리 없을 것”

올해 수능은 코로나19 유행 크기와 관계 없이 오는 11월18일 치러질 예정이다. 코로나19 유행 1년차였던 지난해에는 수능이 2주간 연기돼 12월에 진행된 바 있다. 2022 수능 성적은 오는 12월10일 통지된다. 수시·정시 원서접수 등 다른 대입일정도 기존 계획대로 진행된다.

조훈희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예정된 수능일정은 변함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특단의 방역조치를 취해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올해 예정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부와 평가원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첫 시험인 만큼 각 영역·과목별 시험 구조, 출제방식 등 변화가 큰 편이다.

우선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의 경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뉜다. 국어는 공통과목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선택과목 1개 또는 선택과목만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김동영 평가원 수능본부장은 “전체 공통과목이 약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성적으로 선택과목별(난이도) 차이를 통계적, 기술적으로 보정하게 된다”며 “학생들은 적성이나 진학하고자 하는 희망대학·전공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한다는 접근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이과 통합에 따라 탐구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2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사회과목은 9개, 과학과목은 8개다.

“코로나19 고려한 난이도 조절 무리...안정성 유지”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영어 연계방식은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직접연계에서 소재, 원리 등이 유사한 간접연계로 바뀐다. 지문과 문항을 통째로 암기하는 식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사와 영어에 이어 2022 수능에는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도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총 9개 등급으로 나뉘며 원점수 45~50점일 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까지 4교시 한국사 탐구영역 답안지가 하나로 지급됐지만 2022 수능에서는 분리된다. 기존에는 4교시 시험에서 최대 3개 과목을 순서대로 응시하고 답안지는 하나만 제공돼, 답안지 실수와 부정행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올해 수능 모의평가는 6월3일과 9월1일 두 차례 치러진다. 평가원은 모의고사를 통해 학생들의 수준, 성적 결과를 가능한 뒤 실제 수능 난이도를 조절, 출제할 예정이다.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 테이프를 제공한다.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지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응시수수료 환불 및 면제 제도, 문제·정답이 의신청 제도의 구체적인 실시 방안과 절차, 코로나19 방역지침 등은 오는 7월5일 공고될 수능 시행세부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유행 여파가 수능에 미칠 수 있지만 평가

2022학년도 수능 시행기본계획

수능 시행일	2021년 11월 18일 (목)
성적 통지일	2021년 12월 10일 (금)
6·9월 모의평가 시행일	2021년 6월 3일(목), 9월 1일(수)

2021 수능		2022 수능	
국어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	공통 독서, 문학 선택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수학	가형(이과) 수학I, 확률과 통계, 미적분 나형(문과)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공통 수학I, 수학II 선택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절대평가 영어, 영어II	절대평가 영어I, 영어II	
한국사	절대평가 한국사	절대평가 한국사	
사·과탐	사회과학 계열 내 택2 사회 9과목/과학 8과목(과학I·II)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2 사회 9과목/과학 8과목(과학I·II)	
직업	직업 계열 중 택2 10과목(농·공·산업·수산·가사 계열당 2개씩)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 선택 5개 계열 중 택 1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일반, 상업 경제 수산·해운 산업 기초, 인간 발달	
제2외국어/한문	9개 과목 중 택 1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절대평가 9개 과목 중 택 1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1.03.16 전진우 그래픽 기자 618ue@newsis.com

원은 일부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난이도를 조절하진 않을 방침이다.

강 평가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수능) 난이도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크다고 생각된다”며 “그 변화가 어떤 것인지도 확연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난이도를 이렇게 저렇게 조정한다는 시도 자체가 상당히 무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능시험을 염두에 둔다면 이제까지의 난이도 혹은 출제 기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부하는 수험생·가정 입장에서는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호남신문 www.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